천년고찰 숲길서 만나는 '버스킹'

통도사, 매주 일요일 무풍한송로서 공연 제공

팬데믹에 위축된 문화 소통
무료 공연이 활기 불어넣어
아마추어 가수엔 공연 기회
사찰방문객엔 '힐링' 시간돼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통도사가 매주 일요일 오후 2시 경내 무풍한송로 송수정 앞 무대에서 '통도사와 함께하는 버스킹'을 개최하고 있다. 사진은 7월 23일 버스킹 무대 현장.

영축총림 통도사(주지 현덕)가 지역민을 위한 버스킹 공연으로 화제를 모으고 있다. 통도사는 매주 일요일 오후 2시 경내 무풍한송로 송수정 앞 무대에서 '통도사와 함께하는 버스킹'을 개최하고 있다.

7월 23일 열린 버스킹 현장에서는 천상의 소리로 알려진 팬플룻의 연주 소리가 들려왔고, '엘콘도르 파사', '넬라 판타지아' 등 유명한 곡들이 소나무가 우거진 무풍한송로를 채웠다.

오고 가는 시민들은 발걸음을 멈추고 연주 소리에 귀를 기울였으며, 가족들과 통도사를 찾은 시민들은 예상하지 못한 선물을 받은 듯 밝은 미소를 지었다. 시민들은 송수정 카페 앞에 마련된 자리에 앉아 아는 노래가 나오면 따라 불렀고, 박수를 치며 밝은 미소로 공연에 화답했다. 특히 통도사 경내는 장애인을 위한 산책로가 조성돼 사찰을 찾은 장애인 및 걸음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휠체어를 타고 무풍한송로 송수정을 찾아 가족과 힐링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버스킹은 통도사 인근에서 활동하는 아마추어 음악가 모임인 '투 가이즈(Two Guys)'가 담당했다. 통도사에서 진행하는 버스킹 소식을 듣고 공연을 신청한 이들은 공연 직전 인사말을 통해 "세계문화유산이자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통도사에서 공연을 하게 되어 진심으로 행복하고 영광"이라고 말했다.

통도사는 지난 6월부터 버스킹 신청자를 모집 중이다. 버스킹 공연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위축된 활기를 되살리고, 지역민과 문화 소통의 시간과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 아울러 음악을 사랑하는 아마추어 가수들이 버스킹 공연을 통해 아름다운 자연과 어우러진 무대에서 실력을 뽐낼 수 있는 기회를 선사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통도사 '송수정(送愁亭)'은 '무풍한송로를 따라 흐르는 청류동 계곡에 근심을 흘려 보낸다'는 의미가 담겨 있으며, 조계종 종정예하 성파 대종사가 직접 지은 이름이다. 송수정에서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숲속 작은 음악회'를 비롯해 가수 한영애와 재즈 보컬리스트 웅산, 양지밴드 등 유명 가수들의 화려한 무대가 열린 곳이기도 하다.

송수정은 통도사 산문을 지나 나오는 무풍교를 지점으로 청류교까지 조성되어 있는 솔숲길 무풍한송로 중간에 위치해 있다. 송수정을 찾아 오르는 무풍한송로는 제18회 아름다운 숲 전국대회에서 생명상(대상)을 차지할 정도로 아름다운 풍광을 자랑한다.

통도사는 "송수정 특설무대는 비가 온 뒤에 솔향이 더욱 짙어지고, 흐르는 계곡에는 영축산 맑은 물이 흘러 내려오는 천혜의 자연환경 속에 세워진 무대"라며 "힐링을 선사하는 아름다운 공간에서 음악을 선사해 오고가는 시민들에게 기쁨을 주고 음악인들에게는 추억을 주고자 준비했다"고 전했다.

'통도사와 함께하는 버스킹'은 지역, 나이 등 제한 없이 신청이 가능하며 통도사 방문 및 메일 주소(plan@tongdosa.or.kr)로 접수하면 된다. 신청서는 통도사 홈페이지 공지사항 첨부파일에서 내려받으면 된다. 버스킹 참여 희망자는 관객에게 불편감을 주는 행위를 삼가고 특정 종교 및 정당 등을 지지하는 발언은 금지된다. 공연 기간은 7월부터 계속 이어지지만 추운 겨울 날씨 및 우천에는 취소된다.

창원·부산대 불교학생회 성주사 합동 하계수련회

주지 법안 스님 학생들 격려

국립창원대 불교학생회(회장 유주현)와 부산대 불교학생회(김건우)가 7월 24일부터 25일까지 1박 2일 동안 창원 성주사 일원에서 합동 하계수련회를 개최했다.<사진>

입재식에는 성주사 주지 법안 스님을 비롯해 유주현 창원대 불교학생회장, 김건우 부산대 불교학생회장 등 20여 명이 동참했다. 학생들은 수련회 기간 동안 성주사에서 불교 예절과 황토 숲속걷기 등 힐링의 시간을 체험하고 스님과의 차담 등을 진행했다. 아울러 불모산 성주사의 보물 문화재를 알아보며 불교문화를 체험하는 기회도 가졌다.

성주사 주지 법안 스님은 "20대는 자기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이다. 자신을 알아가고 성장하는 데 더욱 투자하고 노력하길 바라며 불교학생회 상호 간 소통과 화합을 기대한다"고 격려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장애인 교육단체에 전한 '연등 공덕'

부산불교연합 1000만원 상당
컴퓨터 · 책상 등 물품 기부
부산연등축제 자비나눔 일환



부산불교연합회가 7월 21일 부산 전포동에 위치한 '장애인 참배움터'에서 '2567부산연등축제 자비나눔행사'를 개최했다.

부산불교연합회(회장 보운)가 7월 21일 부산 전포동에 위치한 '장애인 참배움터'에서 '불기 2567년 부산연등축제 자비나눔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범수 스님(부산불교연합회 사무총장)을 비롯한 임원진 스님과 연합회 관계자, 이중설 장애인 참배움터 교장, 유재윤 사무국장 등이 참석했다.

연합회는 이번 자비나눔을 통해 장애인 참배움터에 직업교육반 수업용 컴퓨터 10대와 검정고시반 및 직업교육반 수업용 책상 20개, 분반 분리용 캐리어 15개 등 총 1000만원 상당의 교육 물품을 전달했다. 후원 기금은 올해 부산연등축제 부산연등문화제에서 진행된 시민들의 소원등 달기 체험비 전액과 연합회에서 일부 추가 예산을 편성해 마련됐다.

사무총장 범수 스님은 "매년 부처님 오신날을 맞아 진행하는 부산연등축제를 통해 모인 기금으로 부산지역의 어려운 단체들을 찾아 자비나눔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장애인들의 자립을 위해 사명감과 신념을 가지고 노력하시는데 이제야 인연이 되어 미안한 마음이다. 오늘 전달하는 기금은 부산 시민들의 마음이 십시일반 모인 것이라 더욱 의미가 있고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인사를 전했다.

이중설 교장은 "10년이 넘은 노후화된 컴퓨터와 집기 등으로 열악한 교육환경이었는데 이렇게 지원해주셔서 많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편안히 수업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되어 감사드린다"고 인사를 전했다.

부산불교연합회는 코로나19 이후 종교에 관계없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을 위한 자비나눔을 2021년부터 매년 진행해오고 있다. 2021년에는 지역시장 상인 지원을 위해 5900만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구입하고, 지역 방역거점 병원인 부산의료원에 1000만원 상당 위문품을 전달했으며, 2022년에는 부산광역시 청소년자립지원관 보호 청소년들을 위한 1000만원 상당의 필수 가전제품을 지원해 부처님의 자비사상 실천에 앞장서고 있다.

한편, 부산 최초이자 유일한 장애인 교육단체인 '장애인 참배움터'는 1989년 성인장애인 야학으로 개관했다. 현재 50여 명의 학생들이 문해교육, 학력보완교육, 인문 · 시민참여 교육, 문화예술교육 및 직업능력 교육 등을 받고 있다. 특히 오픈마켓 창업과정, 소셜 창업과정 등의 직업능력교육을 통해 장애인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해 온전한 사회구성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기관 운영은 후원과 자원봉사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협소한 공간과 취약한 시설로 인해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이 아닌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 비영리단체로 등록되어 지자체의 운영비 보조금을 지원받지 못해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 현재 후원과 자원봉사자들의 봉사로만 운영되고 있는 실정으로 많은 관심과 후원을 기다리고 있다. 후원 계좌는 농협 121065-51-050098(예금주 장애인참배움터)다. (051)515-0859

이도경 부산지사장

생명 · 자연 살리는 '녹색사찰' 동참

부산 기장 해광사, 부산불교환경연대와 협약

부산 기장 해광사(주지 태공)가 7월 24일 경내에서 녹색사찰 협약식을 개최했다.<사진>

협약식을 통해 해광사는 환경살리기 운동에 앞장서고 녹색사찰로서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빈그릇 운동 △탄소중립 에너지 절약 △사찰숲 프로그램 제공 △지역 환경문제에 공동대응 △녹색사찰활동 대외홍보 등을 실천한다.

협약식에는 해광사 주지 태공 스님과 부산불교환경연대 상임대표 안도 스님 등 관계자가 참여했으며, 현판 전달 및 협약 후 인사말을 통해 환경보호 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해광사 주지 태공 스님은 "안타까운 수해 피해 소식이 들려오는 요즘 녹색환경 운동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게 된다"며 "환경운동은 현대 가장 중요한 실천 과제이자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신 부처님의 가르침을 잇는 우리 불제자의 소명"이라고 강조했다.

부산불교환경연대 상임대표 안도 스님은 "녹색사찰로 협약에 동참해주신 해광사 주지 스님을 비롯해 신도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환경수호를 위해 노력해주시고 실천에 동참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격려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생명나눔실천 부산지역본부가 7월 21일 부산 영광도서 8층 문화홀에서 창립17주년 기념 '숭고한 마음 생명존중 강좌' –장기기증의 필요성 '을 주제로 강좌를 개최했다.

부산 생명나눔, 창립 17주년 기념 강좌

7월 21일 '장기기증 필요성' 주제로

생명나눔실천 부산지역본부(본부장 심산)는 7월 21일 부산 영광도서 8층 문화홀에서 '장기기증의 필요성'을 주제로 창립 17주년 기념 '숭고한 마음 생명존중 강좌'를 개최했다.

강좌는 생명나눔과 생명존중을 실천하는 삶의 방향을 제시하는 자리로, 부산시민들에게 장기기증 희망등록에 대한 인식 전환과 활성화 방안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강좌는 1부와 2부로 나눠 진행됐으며 강의 후에는 수료증 수여 및 기념사진 촬영이 진행됐다. 1부 강의는 '숭고한 마음 생명존중'을 주제로 박동범 부산 생명나눔 사무국장이 장기기증희망등록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박 사무국장은 "장기기증이 불교핵심 가르침인 동체대비 사상과 맥락을 함께한다"고 강조했다. 2부 강의는 '장기 · 인체조직 기증방법' 주제로 복춘희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이 뇌사자 판정 및 기증진행과정에 대해 설명했다.

부산 생명나눔 본부장 심산 스님은 "최근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많은 분들이 안타깝게 운명을 달리하고 다치셨다. 생명에 대한 소중함, 장기기증에 대한 문제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가까이 있는 현실이란 걸 새삼 느꼈다"며 "이번 강좌를 통해 생명에 대해 그리고 장기기증의 현실에 대해 이해하고 바라보는 중요한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이도경 부산지사장

견강암 "삼계탕 드시고 힘내세요"

어르신들 위해 삼계탕 700인분 공양



자비나눔 실천도량인 부산 견강암(주지 향공)이 7월 26일 사상구 모라동 소재 고동바위공원에서 '이웃과 함께하는 정(情) 나누기 만발공양'을 진행했다.<사진> 이날 행사에는 향공 스님을 비롯해 견강암 소속 봉사단체인 (사)부산정각원 회원 40여 명이 여름철 보양음식인 삼계탕 700인분을 준비해 어르신들에게 공양을 올렸다.

주지 향공 스님은 "그동안 극한호우 피해와 최근의 폭염으로 인해서 전 국민의 심신이 많이 지친 상태다. 특히 어르신들께서는 더위에 기력이 많이 부족하실 것 같아 이렇게 특별히 삼계탕을 준비하게 됐다"며 "저희들의 정성으로 준비한 공양 맛있게 드시고 올 여름 건강히 잘 지내시길 바란다"고 인사를 전했다.

전수덕 부산정각원 자원봉사자는 "지난해에 견강암과 인연이 되어 스님의 나눔보시 원력에 감동 받아 정각원 회원으로 활동한 지 1년이 지났다. 스님을 비롯해 훌륭한 분들과 봉사를 함께하니 영광"이라며 "사상구민 여러분께서 삼계탕 공양의 좋은 기운을 받아 건강하시길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

견강암 나눔봉사는 주지 향공 스님이 30여 년 전 국제시장 난민촌에서 국수만발공양으로 출발했다. 이후 사상구로 도량을 이전 개원 후 17년째 매월 둘째, 넷째 주 국수만발공양을 이어왔다. 견강암 산하 봉사단체인 (사)부산정각원은 2022년 11월 1일 창립 후 꾸준히 회원이 증가해 현재 100여 명이 활동 중이다. 견강암은 무료급식과 함께 장학금 전달, 효잔치, 김장김치, 소외가족 반찬나눔 등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천해오며 봉사활동의 모범이 되고 있다.

이도경 부산지사장

디지털 사회복지실천 최우수 사례 선정

개금종합복지관, 사회적 고립 예방 활동 평가



개금종합사회복지관(관장 류강렬)이 보건복지부가 주관하고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주최한 '2023년 디지털사회복지실천사례' 공모전에서 최우수상(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했다.<사진>

이번 공모전은 다양한 ICT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사업이며, 현장 우수사례 발굴을 목적으로 열린 공모전이다.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은 사례 발표 및 심사를 통해 개금종합사회복지관을 최우수상으로 선정하고,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여했다.

개금종합사회복지관은 디지털 사회관계망 형성을 도와주는 '개금안테나 APP'를 개발 및 도입했으며 '개금안테나APP'은 부산광역시 15분 도시 정책의 일환으로 KT와 함께 스마트폰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사업이다. 개금안테나APP는 해마다 증가하는 고독사를 예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LTE 패드에 탑재해 시니어 건강신호등 기능을 사용했다. 건강신호등 기능은 어르신들의 몸 상태를 복지관 담당자가 실시간 모니터링하도록 도왔고, 그 결과 고독사 발생이 제로라는 높은 성과를 달성했다. 아울러 어르신들의 가정에 전기, 가스, 생활 안전 자가점검을 통한 위험 예방 활동과 복지관 담당자와의 다이렉트 영상통화, SNS(카카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양방향 소통에 기여하고 있다.

류강렬 개금종합사회복지관장은 "디지털 영역이 넓어지고 있지만 고령자 등 취약계층 노인들은 여전히 접근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디지털 취약계층이 사회적으로 고립되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디지털 사회복지실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